

생활·로컬 분야 자영업자 역량 키워, 혁신 ‘라이콘’ 만든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
대학생·MZ세대 창업 체계적 지원
지역기업과 함께 장인학교 운영
성장단계별로 글로벌 진출 추진
아이디어 발굴 등 민간금융 연계

정부가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생활분야 자영업자를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적극 육성한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발굴→창업→비즈니스 모델 고도화·확장→민간금융 연계 통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육성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브랜드도 유니콘(Unicorn), 데카콘(Decacorn) 등을 연상시키는 ‘라이콘’(LICORN·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으로 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오후 서울 마포 연남장에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남장에서 열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 발표 및 토크쇼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를 통해 중기부는 소상공인 창업 분야에 창의인재를 육성한다. 최근 늘어나는 대학생 창업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대학 내 생활산업 전공자에게 창업교육을 부전공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지역기업들과 함께

콘텐츠에 기반한 장인학교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라는 거점 공간을 마련해 기존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변화시킨다.

중기부는 또 성장단계별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한다.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와 확장을 지원하고 민간금

융도 연계한다.

민간 선투자 연계형 매칭융자를 도입해 민간이 1억원을 투자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로컬크리에이터가 중심이 되는 상권창업도 촉진한다. 역사, 문화 등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상권창업을 촉진해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로 키워내고 세계인이 찾는 콘텐츠 상권과 도시를 만든다.

스케일업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중기부는 민간혁신가가 주도할 수 있도록 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중심의 커뮤니티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돕는다. 투자펀드 조성, 사업권 투자, 자본전환계약 제도 등 다양한 투자제도를 통해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혁신창업붐을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이룬다.

중기부는 이날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라이콘 기업’(LICORN) 브랜드도 발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을 더 이상 소상공인이라 부르지 않고 라이프스타일이나 로컬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유니콘 기업이라는 이름의 ‘라이콘’으로 새롭게 브랜드했다”고 설명했다.

정책발표 후 복순도가, 도레도레, 삼진어묵, 재주상회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과 토론하는 등 토크쇼도 가졌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의 경우 보호와 지원 위주였고 성장·육성은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에 집중돼 있었다”며 “기술 중심의 창업·벤처 정책과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생활·로컬분야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새롭게 육성해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진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연 ‘로지텍스 서포터즈 3기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진

한진, 물류 분야 ‘지식공유’ 활동 확산

로지텍스 서포터즈 3기 발대식
관련 학과 대학생·사회 초년생 선발

한진이 ‘로지텍스 서포터즈’ 3기 발대식을 열고 물류 분야의 다양한 지식 공유에 나섰다.

16일 한진에 따르면 ‘로지텍스’는 2021년 11월에 한진이 물류산업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업계 최초로 론칭한 물류 전문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물류 전문가 매칭 서비스, Q&A, 물류 트렌드 및 인사이드, 커뮤니티 채널 등 물류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류업계 종사자의 실무 이해도 향상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물류 고민 해결, 물류 관련 학과 대학생이나 일반인의 생활 속 물류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한 전문지식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가로 등록된 회원은 컨설팅 활동을 통해 부가수입 창출도 가능하다.

한진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친 서포터즈 1기와 2기의 뒤를 이어 3기 역시 국내 최대 청년 물류 연합 단체인 한국청년물류포럼 소속의 물류 관련 학과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 25명을 선발한다. /김승호 기자 b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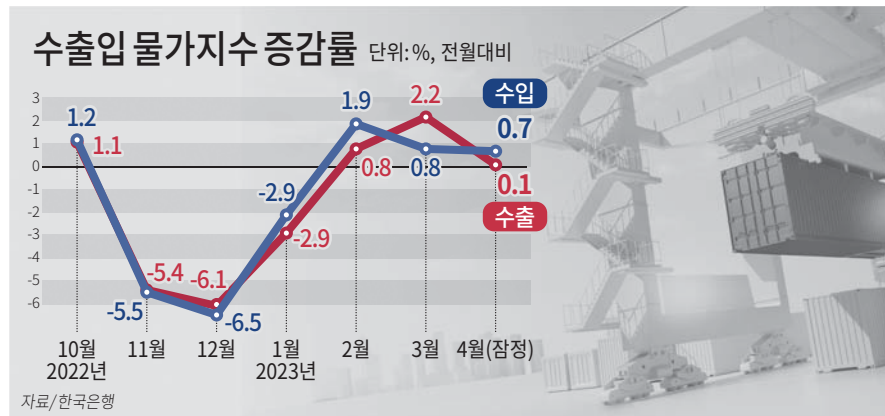
고환율 지속 ‘수출입물가’ 전월比 0.7% ↑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올라
국제유가 배럴당 83달러대 ↑ 영향
이달 물가 소폭 상승할 것 예상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입물가가 소폭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3달러대로 오른 영향이 컸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5월 물가 상승률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3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39.81로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83.44달러로, 지난 3월 78.51달러와 비교해 6.3% 올랐다. 원·달러환율도 지난 3월 1305.73원에서 4월 1320.01원으로 같은



기간 1.1% 상승했다.

그 결과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가 전월 대비 1.9% 상승했다. 중간재는 제1차금속제품이 올랐지만,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내리며 0.4% 하락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1.6%, 0.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입물가상승분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한 117.92를 기록했다. 반도체 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른 영향이다.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3.6%)가 내렸지만, 화학제품(1.2%), 제1차금속제품(2.1%) 등이 오르며 공산품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농림수산물도 전월 대비 0.6% 하락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올 스마트상점 보급사업 1.3만여 명 몰려

높은 인건비 등 부담에 경쟁률 3대 1

정부의 스마트상점 지원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혁신을 도모하려는 소상공인이 올해 폭발적으로 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4월부터 접수받은 ‘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이 약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모집이 끝났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시 비용

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4400점포 내외(일반형 4000개, 미래형 400개)로 한 달 간 1만3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작년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12월까지 10여 차례 추가 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지원자가 몰린 것은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인한 영향이 컸다. 아울러 최저임금 상승 및 인력 부족 등 구인난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스마트기기 수요가 증가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김승호 기자

인력기반 물류현장 구인난 여전해
고용확대·스마트화 전환 지원 필요

지난 1분기 물류기업 절반의 매출 실적이 코로나 기간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부진했지만, 10곳 중 7곳은 작년 이상 규모로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물류기업 19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이후 물류기업의 경영전망 조사’에 따르면 물류기업 47.2%의 올해 1분기 매출 실적이 코로나 기간이었던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와 ‘비슷’ 응답은 각각 28.4%,

24.4%에 그쳤다. 코로나 때 실적이 더 나았던 물류기업이 많았던 셈이다.

매출이 감소한 기업의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83.7%)와 ‘운임 하락’(39.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로 해상 컨테이너 운임은 작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하락 추세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 운송체계 혼란으로 실수요와 별개로 운임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바 있지만, 운송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경기침체를 맞아 물동량이 감소하고, 운임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은철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IT기반의 디지털 혁신이 물류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인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물류현장에서 구인난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는 택배, 화물운송, 수출입 물류현장에서 외국인 고용 확대가, 중장기적으로는 물류자동화·스마트화 전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에 이어 물류기업의 절반은 코로나 위기단계가 하향된 하반기에도 물류시장의 경기가 나쁠 것으로 전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